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Korean Nurse Missionary's Experience in Oversea Missionary Work

한미영 (Mi-Young Han)*

손수경 (Sue-Kyung Sohn)(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henomenological study wa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the experience of Korean nurse overseas missionary.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nine female nurse missionaries who had spent more than 2 years in overseas mission fiel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May 2013 to September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Results: The general structure of Korean nurse missionary's experience was 'living as a Christian nurse in a foreign land'. 6 constituents extracted from this analysis were made up of 'mission calling and preparation', 'encountering the strange and unfamiliar world', 'being overwhelmed by the situations of the land', 'recognizing self, others, and the mission', 'joy and feeling worth to see the changing land', 'growing spirituality'.

Conclusions: These findings provide deep understanding of lives and difficulties of nurse missionaries working in oversea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eded to develop and intervene effective strategies and educational program that are helpful for nurse missionaries.

Key Words : missionary nurse, mission, phenomenology

이 논문은 한미영 (2015).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중에서 일부를 이 논문의 형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illa University),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hmyyr@silla.ac.kr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Department of Nursing, Kosin University),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sue@kosin.ac.kr

2017년 08월 17일 접수, 09월 16일 최종수정, 09월 16일 게재확정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근대간호는 서양간호선교사들에 의해 동양에 전달되었으며, 한국의 근대간호 역시 Heathcote, Shields와 같은 간호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명숙 외, 2011: 256; 이상규, 2009: 242). 기독교간호사들의 해외보건의 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간호사들은 건강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타국에서 간호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양용숙, 2009: 1-2).

2016년 해외 의료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의료인의 수는 689명이고, 통계자료가 활동 선교사의 수를 모두 나타내지는 못하므로 실제 선교사의 수는 이보다 더 많으며(인터넷자료, 2017.1.23), 그 중 50% 이상이 간호선교사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간호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역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간호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습득, 문화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선교지에서 직접적 도움을 받을 자원과 인력의 부족 등이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성장배경과는 다른 타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탓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사역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장훈태, 2012: 205-206). 해외 파송 한국 간호선교사들 중 10년 이상 장기사역을 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간호선교사의 22.6%로,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내한 외국인 선교사의 비율이 49.1%임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양용숙, 2009: 57 재인용). 그러므로 한국 간호선교사들이 양질의 해외사역을 지속성 있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파송 한국 간호선교사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직무를 분석한 조사연구가 한 편 있었다(양용숙, 2009). 그리고 관련 국외연구는 간호선교의 변화 방향 고찰과 효과적 간호선교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 종설연구와(Bajkiewicz, 2009; Tazelaar, 2011), 다양한 영역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안녕과 멤버케어의 효과를 연구한 질적연구가 있

었다(Camp et al., 2014; Keckler et al., 2008).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선교사나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이고, 대부분 종설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간호선교사들은 귀국 시 사역보고나 간증 등의 발표기회를 가지나, 그들의 심층적인 경험 전반에 대하여 나누고 접할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간호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도 그들의 실제적 필요와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야 하나, 이를 위한 자료도 피상적이고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활동한 한국 간호사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의 개별적 독특성을 깊이 있게 드러내고 전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통합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귀분 외, 2005: 159-163). 따라서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해외선교 경험을 시간적, 상황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해외 간호선교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선교사로서 해외선교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을 통하여 파악된 간호선교 경험의 핵심적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기술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Giorgi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인 간호사 출신으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선교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자료의 포화를 위해 선교사역의 종류, 결혼여부, 선교경력을 고려하여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B시의 S병원과 B병원 간호부의 협조와 연구참여자의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당시 4명의 참여자는 영구 귀국, 5명의 참여자는 일시 귀국한 상황이었으며, 미혼 사역자가 5명, 기혼사역자가 4명 이었다. 참여자들은 현지 병원의 간호관리자, 지역사회보건간호사, 간호대학 교수, 의료봉사, 교회개척, 상담, 관할 선교지를 총괄하는 리더로 일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최저 33세부터 최고 50세까지 이었다. 사역지는 5명은 아시아, 2명은 아프리카, 1명은 북아메리카, 1명은 남아메리카 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별 면담횟수는 2회에서 5회까지 이었으며, 자료가 포화되는 시점까지 총 28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은 “귀하의 해외선교 경험은 무엇입니까?”이었다.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경우에는 준비한 부가적 개방 질문을 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 관찰한 사항은 참여자의 표정, 몸짓, 억양 등이었다. 연구를 위한 메모는 참여자의 진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면담 도중 가능한 삼가하였으며, 참여자와 헤어진 후 기록하였다. 참여자와 2차면담은 1차면담의 내용 중 미흡한 상황에 대한 확인과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참여자들과의 면담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Giorgi의 분석방법을 따라,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반복적인 순환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수행된 구체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Giorgi, 1997: 235-260; Giorgi, 2012: 3-12; Giorgi, 1985, 신경림 외 역, 2004: 19-35). 첫째, 전제없이 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이야기의 흐름과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였다. 둘째, 간호선교 경험에 초점을 두고 경험진술이나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의 의미단위를 구별하였다. 셋째, 의미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시키고, 변형된 의미단위들의 관련성을 서로 비교, 대조하며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통합하였다. 각 참여자의 통합된 의미단위들을 분석하여 핵심개념을 찾고, 하위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도출된 자료를 회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자료의 적합성과 추상성을 높여 나갔고, 자료의 속성과 차원을 고려하여 같은 속성과 차원 수준으로 하위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분석하고 수정하였다. 넷째, 구성요소들 간의 일관성 있는 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요소들을 통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구성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질적연구의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따랐다(Lincoln, Guba, 1985: 294-331). 첫째,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2년 이상 해외선교 경험이 있는 간호선교사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1년간 실시되는 의료선교훈련을 이수하였다. 연구 결과를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3인에게 다시 읽도록 하여(member check) 자신들의 경험과 일치하는 기술이라는 검토결과를 얻었다. 둘째, 연구의 적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간호선교사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자료가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수집과 분석을 계속하여 보다 풍부한 기술(thick descrip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의 일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면담과 필사의 전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고,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과정 전체를 계속적으로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았다(audit trail). 넷째, 연구의 중립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반성적 일기(reflective journal)를 기록하여 자

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드러난 연구결과에 대해 결과가 과연 그러한지 회의적 태도를 유지하며 결과를 다시 검토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심의 승인(IRB no: 1040549-130715-SB-0023-01)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 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중도 포기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연구의 방법 및 참여자의 권리와 자율성 확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한 후 자발적 서면동의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도중 1명의 연구 참여자가 필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사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삭제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참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컴퓨터 파일을 포함한 모든 자료에서 삭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

본 연구 결과 참여자가 경험한 해외선교 경험의 구조는 6개의 구성요소와 15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6개의 구성요소는 ‘선교소명과 준비’, ‘낮선 세계와 맞닥뜨림’,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자신, 타인 및 선교에 대한 깨달음’, ‘선교지의 변화를 보는 기쁨과 보람’, ‘깊어지는 영성’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선교소명과 준비

참여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선교에 관해서 보고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선교활동을 동경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선교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과 기쁨 등을 체험하며 간호선교를 소명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참여자들은 선교현장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로 조산사 훈련, 석사 학위취득, 임상경험, 타문화권 적응훈련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선교 헌신의 동기’와 ‘선교사역을 위한 준비’로 도출되었다.

① 선교 헌신의 동기

참여자들의 선교 헌신의 동기는 타인에 대한 아픈 마음, 존경하는 사람의 삶을 본받음, 신앙인으로 당연한 일, 선교를 강조하는 주변 분위기의 영향이었다. 참여자들은 간호선교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명의식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그 땅을 위해 울지 않는 그런 종족들이 사는 땅이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엄청 아프면서도 ‘누군가는 가야되지 않을까? 내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참여자 1)

②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

참여자들의 간호선교사역을 위한 준비는 간호사로서 전문 영역과 문화적응을 위한 훈련을 미리한 경우와 구체적 준비없이 단순한 봉사의 생각으로 출발한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들의 준비내용은 문화, 종교 및 인간에 대한 이해보다는 주로 의료인으로서 현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 선교지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 마치고마자 조산사 코스를 들어갔었죠. (참여자 8)

(2) 낯선 세계와 맞닥뜨림

참여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모습을 꿈꾸며 선교지에 도착했지만, 그들 앞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놓여있었다. 선교지의 상황은 참여자들의 기대와는 달라 하고 싶거나 혹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일을 할 수 없었다. 참여자들은 현지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사역의 한계가 봉착됨을 절감하며 현지어 습득에 필사

적으로 매달렸으나 숙달은 더디기만 하였다.

더하여 선교지 정착 초기에는 기후, 음식, 언어와 관습이 다른 낯선 현장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 먹고 살아남는 일에 급급하였다. 이 모든 일과 함께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존하며 때로는 속이기까지 하는 현지인의 생각과 태도에 실망도 겪어야 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기대와 다른 현장’, ‘언어의 장벽에 부딪침’, ‘낯선 땅에서 생존을 위한 전쟁’, ‘수용하기 힘든 현지 문화’로 도출되었다.

① 기대와 다른 현장

참여자들은 현지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거나, 혹은 출발 전에 들었던 상황과 달라서 준비한 계획이 어긋나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또 일에 대한 열정은 넘쳐나지만 실제 적용 시 역량부족으로 꿈꿔왔던 사역을 펼칠 수 없는 답답한 경우도 있었다. 사역 초기, 참여자들이 겪은 이러한 시련은 지나온 삶과 자신을 되돌아보고 선교의 본질에 관해 숙고하며 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사역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에 다 겪는 고민들이 언어하고 문화적응하면서 갑자기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고, 그곳 어린아이들과 계속 놀면서 ‘나는 뭘하고 있나!’ 이 생각 많이 하고, 여기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올 때는 왔는데 언어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애들하고 계속 놀아야 되니까, 애들이 친구 부르듯이 나를 불러내고, 나이 마흔 넘어서 애들이랑 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② 언어의 장벽에 부딪침

참여자들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음을 절감하며, 언어공부에 전념하였으나, 체계적인 언어학습 자료의 부재, 훈련된 현지어 교사의 부족으로 언어숙달은 더디기만 하였다. 또한 영어권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참여자들은 영어로 동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위축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빈약한 언어구사 능력으로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돌며 더욱 자신이 그곳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서류를 봐야 되는데 B어는 되게 어려운 언어거든. 서류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이 서류제출부터 먼저 하잖아. 서류를 보고 있으면 하나도 몰라. 이거 뭐. 그래서 나는 면접 볼 때 인상 좋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거야. 감으로. 언어도 잘 안들리고 서류를 봐도 잘 모르고, 물론 도와주는 현지인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 (참여자 1)

③ 낯선 땅에서 생존을 위한 전쟁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지 도착 초기에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사역은 뒷전으로 밀어 두었다. 참여자들은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수도와 전기 같은 기반시설의 미비, 열악한 주거환경, 생필품과 음식재료의 부족으로 고달픈 생활을 해야만 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였다. 한편 생활수준이 낮지 않은 지역이나 국가에서 생활한 참여자들은 물자는 있으나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궁색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아이들을 돌보고 그냥 하루 세 끼를 해결하고 전기도 물도 공급이 안 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느라 어떤 선교사역을 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거기 가서 계속해서 아이들과 씨루고(씨름하고), 맨날 물 갖고 씨루고(씨름하고), 전기 갖고 씨루고(씨름하고). 하루 세 끼 해먹는 게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하루 세 끼를 일단 가정주부로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너무 큰일이었고. 그리고 애기들이 밤에 소변, 오줌 누러 간다. 뭐하면 자꾸 깨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 들고 왔다가야 되고, 그렇게 삶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④ 수용하기 힘든 현지문화

참여자들은 도덕수준, 시간개념 및 낮은 자립의지 등에서 현지문화와 충돌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지인이 물질적 도움이라는 배후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을 대했음을 알게 된 후 현지인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고, 하고 있는 일에 회의마저 들었다. 특히 사역초기에는 현지 문화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 현지인의 행동을 부도덕한 것으로 또는 다름이 아닌 틀림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사기를 당하면 처음에 몇 달은 모르는데 적어도 6개월 지나면 내가 사기 당하고 있다는 거 알거든. 그러면 그것들을 풀어내는 데도 억수로 마음이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러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면서 그게 엄청 힘들거든. (참여자 1)

(3)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참여자들은 물리적 환경과 여러 상황의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인간관계의 범위가 제한적인 타문화권 생활로 동료선교사나 배우자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이로써 불가피하게 극심한 관계갈등을 겪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정서적 고통과 관계갈등을 지니고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교사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을 하고 자괴감을 겪어야만 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 요소는 ‘무너지는 건강’, ‘심리정서적 고통’, ‘힘든 관계로 인한 소모전’, ‘선교사로서 부족한 삶’으로 도출되었다.

① 무너지는 건강

참여자들은 기후와 음식의 변화, 과로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지인과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현지인과 동일한 의식주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몸의 이상반응을 경험하고 있었다. 기후는 불가항력적으로 참여자들을 무기력하게 혹은 움츠러들게 했으며, 몸을 돌볼 여력없이 과도하게 일한 결과로 쇠약해지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몸의 아픔은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소진 현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 나는 어쨌든 ‘내가 그 곳에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고, 그 곳의 생활에 최대한 나를 맞춰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뭐 단기로 잠시면은 가능한데 2년 있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참여자 4)

② 심리정서적 고통

참여자들의 삶에 수반되었던 심리정서적 고통은 외로움, 가족을 향한 부담감과 미안함, 낙담과 소진 등이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현지인들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깊은 속마음을 터놓기 어려웠다. 특히 미혼 참여자들은 가식없이 일상과 감정을 공유할 가족이 없어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의 외로움은 고국에 대한 향수, 혼자 일을 감당하는 막막함과 혼자서 장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등과 뒤섞여 있었다. 미혼 참여자들은 고국에 두고 온 부모님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늘 무거웠다. 기혼 참여자들은 한국과 선교지 어디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자녀들을 지켜봐야 했고, 자신이 선택한 삶으로 자녀가 희생당하는 것 같아 이 일의 지속여부를 두고 갈등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지인의 변하지 않는 영적 세계관을 보며 실망과 낙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감각해지는 소진 증상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심리정서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참고 견디고 지냈다.

딱 도착하는 순간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딱 서는 순간 외롭다는 게 확 진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 곳에 있기가 너무 두려운, 그 외롭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한국사람 혼자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한국사람 혼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참여자 3)

③ 힘든 관계로 인한 소모전

참여자들은 동료선교사들과 삶의 방식 및 성향이 달라 그 차이를 극복하며 융합해 가는 가운데 갈등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동료 선교사와 선교관점이 달라 대립하기도 하였다. 선교관점의 차이는 일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사역의 주력부분에 대한 우선순위의 차이, 현지인에게 선심성의 돈을 주는 문제, 그리고 업무추진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동료와의 갈등은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뒤얽혀서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한국의 수직적, 권위적 문화의 영향 탓에 순종을 강요하며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동료선교사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든 갈등을 겪어야 했다. 기혼 참여자들은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가사와 육아의 무거운 짐을 남편과 나누기 원했지만 실제 도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껴야 했다. 참여자들은 갈등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는 말로 풀고 소극적으로는 적극적 혹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참는 갈등대처 전략을 사용하였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너무 질렸어요. 현지인한테 질린게 아니고 한국 분한테 질렸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가 다시는 S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지인과의 관계에서 맺었던 소모전보다 한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겼던 소모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참여자 5)

④ 선교사로서 부족한 삶

참여자들은 역량부족, 처해있는 상황의 한계 그리고 관계갈등에 묶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교사 모델대로 살 수 없음에 극심한 내적갈등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비록 현

지인의 결점이 눈에 보이더라도 현지인을 수용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힘들어 하였다. 또 선교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업무는 의료봉사와 병원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젊은 기혼 참여자들은 가사와 육아로 인해 직접적인 선교사역보다는 선교사 아내로 생활하면서 자신이 과연 선교사가 맞는지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동료선교사와 관계불화로 인해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없거나 삶과 사역의 균형이 깨어진 모습들은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교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느꼈다.

남편은 그 곳에서 일 하기로 결정했고, 저보고는 “아이들 전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으로서 한 집에 가장으로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받아들여졌던 것 같애. 그 당시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한테 크게 불평을 안 했어요. 말은 안하고 속으로 힘들어하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힘들었는지를 제가 (선교)갔다 오고 거의 일 년이 다 됐을 때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중략) 자기가 선교사의 소명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나갔을 때 내가 선교사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삶이 어려운 거에 대한 부담감 이 두 개가 다 오는 거예요. (참여자 5)

(4) 자신, 타인 및 선교에 대한 깨달음

참여자들은 간호선교사로 일하면서 선교지의 상황과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이 고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선교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으나 점차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이나 성향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선교에 대한 인식 재정립’, ‘자신과 타인의 이해와 수용’으로 도출되었다.

① 선교에 대한 인식 재정립

참여자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선교 인식은 하기를 원하거나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지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 선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선교를 현지인과 함께 사는 것, 삶의 본을

보이는 것, 내가 아닌 절대자가 주관하는 일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갔지만 I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선교사라는 게 그냥 그 곳에 가서 그냥 같이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M국에 있을 때 M국 사람들, I국에 있을 때도 I국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사는 것 그게 선교사로서의 생활이지. (참여자 8)

② 자신과 타인의 이해와 수용

참여자들은 선교사역이라는 독특한 경험과 관계갈등 그리고 선교지의 단조로운 생활 덕분에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자아에 대해 숙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통찰은 인격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혀 나갔다. 참여자들은 관계갈등의 핵심이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던 자신의 관점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람의 변화가 단기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배운 후 현지인의 성숙을 차분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복음은 하나이지만 문화는 다양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한국식 신앙생활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현지문화를 이해하며 그들의 신앙생활 방식을 수용하게 되었다.

제가 그 때 뼈저리게 느낀 게 ‘나는 너무 한국적으로 사는 크리스찬이었구나!’ (중략) 일단 그 상황들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나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한국식으로 하나님을 믿을까?’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나, 내 문화나, 내 속에서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안해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를 그 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참여자 9)

(5) 선교지의 변화를 보는 기쁨과 보람

참여자들은 삶을 통하여 현지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현지 병원의 간호사, 간호교육자 혹은 지역사회의 일차건강관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현지인의 기독교 개종, 신앙성숙, 질병회복과 같은 일들을 볼 때 여태까지 겪었던 어려움이 보상되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선교현장에 요긴한 간호’, ‘현지인의 변화와 성숙을 보게 됨’으로 도출되었다.

① 선교현장에 요긴한 간호

참여자들은 간호자체를 선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간호를 복음전파의 효과적인 도구로 여기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간호를 선교자체 또는 선교도구로 보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지식과 기술이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임을 경험하고 있었다. 간호는 현지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의 필요를 채우고 현지인을 신체적,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도구로 유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복음전파의 접촉점으로 기능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받은 간호교육과 임상경험을 현지의료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현지인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였고 현지인의 신체간호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전인적 돌봄자로 일하고 있었다.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풀 베는 칼에 베었다고 오라는 거예요. 갔는데, 제가 손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거예요. 나갈 수가 없고 뭐 실이든 소독물품이든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제가 슈처(suture)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여자 7)

② 현지인의 변화와 성숙을 보게 됨

참여자들은 현지인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후 신앙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볼 때 그동안의 어려움이 보상되는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제시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현지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관습 안에서 믿기로 결심한 후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현지인의 신앙성숙은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기다림의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에게는 현지인의 신앙성장과 삶의 변화는 귀한 열매로 보람을 가지게 하였다.

근데 참 기뻐던 거는, 현지인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됐다는 거게 참 기뻐요. 그 사람 현지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이런게 아니고 그 사람도 나한테 조언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대상이 생겼다는게 참 좋았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게 참 좋았었어요. (참여자 4)

(6) 깊어지는 영성

참여자들의 신앙심은 선교지에서 더욱 깊어졌다. 참여자들은 기댈 곳 없는 낯선 땅

에서 오직 절대자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선교지의 단조로운 생활 덕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며, 이로써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선교지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절대자가 자신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자신들을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때로 참여자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하위구성요소로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도출되었다.

① 체험하는 신앙

참여자들은 선교지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절대자의 충만한 위로, 기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갔다. 이러한 믿음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것들이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깊이가 있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선교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몰고 가는 추진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의 그 기쁨들 그럴 때의 그 만족함이. 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참여자 8)

2.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적 구조

본 연구의 6개의 구성요소들을 통합해서 도출된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낮선 땅에서 기독교간호사로 살아가기’이었다.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일반적 구조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기독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선교와 관련된 일상적이지 않은 체험을 통해 선교가 자신들의 소명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참여자들은 간호선교사의 길을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선교지에 도착했으나 자신의 기대와 다른 현지 상황, 언어숙달의 어려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생존문제, 그

리고 현지인에 대한 오해와 실망 등의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는 동안 참여자들은 몸의 아픔, 외로움과 낙담 등의 정서적 고통, 동료들과 힘든 대인관계와 본인의 삶이 선교사로서 본이 되지 못한다는 갈등을 경험하면서 힘든 날들을 지내야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압도당할 것 같은 어려움에 맞서 내적으로 현지인과 현지문화, 동료선교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였고, 외적으로 현지인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이고자 하였으며 현지인들의 전인적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러한 현장경험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선교에 대한 인식이 ‘무엇을 하느냐?’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변화되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내적성숙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과 봉사를 통하여 현장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복음과 간호지식 및 기술이 선교지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를 통한 현지인의 변화와 성숙을 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 실제적이고 깊어지는 영적 성장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영성은 참여자를 짓누르는 현장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내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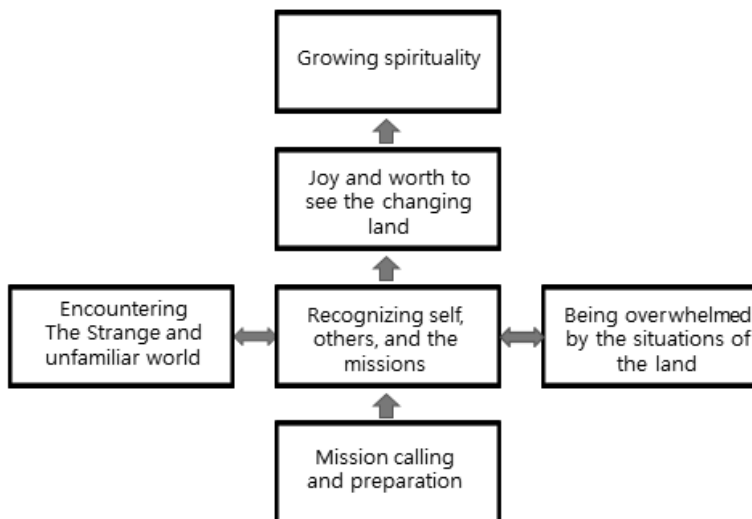


Figure 1. General structure of overseas missionary's experience in this study participants

IV.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는 선교소명과 준비, 낯선 세계와 맞닥뜨림,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자신, 타인 및 선교에 대한 깨달음, 선교지의 변화를 보는 기쁨과 보람, 깊어지는 영성이었다. 본 장에서는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 내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선교사역 준비는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반 선교사와 동일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자신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지식 및 기술을 개별적으로 습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문인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약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창의적 접근지역에 적합한 선교인력이지만, 전문적인 선교교육이나 전문 선교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권형재, 2016: 68, 83). 전문적이고 다면적인 선교사 훈련은 준비된 선교사를 양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교사역과 선교사 중간이탈을 방지하므로(김은호, 2014: 414, 434), 전문적인 간호선교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낯선 선교지 속에서 현지문화 적응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주로 자국 문화의 관점으로 타문화를 이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선교 준비는 선교지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업무에 치중되어 있었고, 사역하게 될 국가의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미비했었다. 신입 선교사는 타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육체의 질병, 우울증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Hiebert, 1985, 김동화 외 역, 85-104), 실제 본 연구의 한국 간호선교사들도 사역초기에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지인을 향한 실망감과 좌절, 분노, 우울 등의 정서적 어려움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선교사에게서 효과적 선교업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국 선교현장을 떠날 수도 있다(Schwandt, Moriarty, 2008: 320; 김동화, 2011: 60-63). 그러므로 선교사 준비과정에서 타문화 이해와 적응 및 전문직 훈련 등의 다차원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역초기 문화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치관의 혼란 및 정서·심리적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간호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압도당함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 대인관계 갈등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유

발시켰고, 내면의 안정감과 평안이 깨지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관계갈등은 한국 선교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다른 여타의 스트레스보다 선교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교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한국일, 2004: 128-129). 그러므로 간호선교사들의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선교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대인관계 훈련 등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한국 간호선교사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신체·정서적 고통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낮은 기후와 음식, 열악한 주거 환경, 과도한 사역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최형근(2011)도 한국 교회가 풍부한 선교인력은 가지고 있으나 선교사 관리에 있어 돌봄이 결여된 생존모드(survival mode)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최형근, 2011: 93). 특히 여성 선교사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정과 사역 둘 다를 감당하는 데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남성 선교사보다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Schwandt, Moriarty, 2008: 318 재인용). 강병만(2005)은 재정상태나 사역기간 등에 관계없이 여성 선교사들은 남성 선교사보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또한 지각된 건강상태와 우울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강병만, 2005: 180-188). 본 연구의 간호선교사들도 몸의 아픔을 경험하였고, 이것은 때로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강병만(2005)의 연구와 동일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형근(2011)은 선교사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들은 그들의 영성부족이나 자질부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선교사들의 심리적 문제는 깊이 감추어지고 있다고 하였는데(최형근, 2011: 95-97), 본 연구에서 간호선교사들도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누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삭이며 지내고 있었다. 심리적 문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며 선교사도 예외일 수 없고, 심리적 문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전문가의 개입과 지원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선교사의 전인건강 회복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간호선교사들은 전인간호 사역자로서 자신들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선교지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간호선교사들이 행하는 총체적 간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의 본질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Tomey and Alligood, 2006, 박영숙 외 역, 2008: 199-229), 한국교회의 선교 패러다임

또한 전통적 선교에서 통전적 선교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안희열, 2013: 254) 간호는 선교에 매우 적절하고 유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간호선교사들은 이러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현지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지식의 결핍과 현지인을 위한 건강교육자료 부족, 현지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시설로 간호업무 제공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양용숙(2009)의 해외에서 활동 중인 간호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 및 보건교육 자료와 같은 간호영역에 대한 지원 요청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양용숙, 2009: 59). 그러므로 간호선교사들이 현지 실정에 맞추어 효과적인 전문간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사역의 준비과정이나 사역 중에 사역지의 요구분석을 통해 필요한 간호지식 제공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이 시점에는 한국 간호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성공적인 정착과 간호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간호선교센터나 간호선교연구소 등의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전문기관은 해외선교 현지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적합한 전문 간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평가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관들은 국내외의 선교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선교준비과정, 언어 및 타문화 이해, 대인관계 훈련 및 상담,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연계 또는 협력하여 개발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간호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해외선교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한 지지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간호선교사들이 열악한 생활여건, 현지문화 적응, 대인관계 갈등과, 신체 및 심리정서적 고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자신, 타인 및 선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신앙인격의 성숙이 나타나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선교지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삶과 사역, 고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

선교사에게 적합한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수가 9명에 국한된 현상학적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르며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신체, 심리 및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인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간호선교사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간호 선교 업무 수행을 위한 양적연구 및 교재개발을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병문 (2005). 선교사의 전인적 건강과 스트레스, 우울증, 일중독과의 관계(2005년도 현황). **복음과 선교**, 5, 170-197.
- [Kang, B. M.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holesome health of korean missionaries, stress, depression, and workholic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year 2005. *Journal of Korea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5, 170-197.]
- 권형재 (2016).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전문인 선교에 관한 연구: 전문인 선교와 영성. **개혁논총**, 37, 67-92.
- [Kwon, H. J. (2016). A study on professional mission for the unreached people: Professional mission and spiritual growth. *Korean Reformed Journal*, 37, 67-92.]
- 고명숙 · 김태숙 · 민 순 · 염영희 · 윤숙희 · 이미애 외 (2011). **간호학 개론**, (Rev. 3th ed.), 서울: 현문사.
- [Ko, M. S., Kim, T. S., Min, S., Park, J. S., Yom, Y. H., Yoon, S. H., et al. (2011). *Nursing Introduction*. (Rev 3th ed.). Seoul: Soomoonsa Publishing.]
- 김귀분 · 신경림 · 김소선 · 유은광 · 김남초 · 박은숙 외 (2005).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Kim, G. B., Shin, K. R., Kim, S. S., Yoo, E. G., Kim, N. C., Park, E. S., et al. (2005).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Hyunmoon Publishing.]
- 김동화 (2011). 행정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토탈케어. **선교와 신학**, 28, 59-84.
- [Kim, D. H. (2011). Missionary total care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Mission and Theology*, 28, 59-84.]
- 김은호 (2014). 효율적인 전망개척 전문인 선교훈련을 위한 전략연구. **신학과 실천**, 39, 413-437.
- [Kim, E. H. (2014). Paradigm shift of professional missionary training for the frontier mission. *Theology and Praxis*, 39, 413-437.]
- 안희열 (2013).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평가와 제안. **선교와 신학**, 31, 249-284.
- [Ahn, H. Y. (2013). An appraisal and proposal in cross-cultural missions in the Korean church. *Mission and Theology*, 31, 249-284.]
- 양용숙 (2009). **한국 기독교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Yang, Y. S. (2009). *Job of Korean Christian Nurse Missionaries*.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장훈태 (2012). **한국교회와 선교의 미래**. 서울: 대서.

[Chang, H. T. (2012). *Korean Church & Future of Mission*. Seoul: Daiseo.]

최형근 (2011).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 **선교와 신학**, 28, 85-114.

[Choi, H. K. (2011). Construction of a missionary member care system. *Mission and Theology*, 28, 85-114.]

한국일 (2004). 선교 120년과 한국선교의 미래. **선교와 신학**, 14, 109-142.

[Han, K. I. (2004). 120 years of Korean mission and the future of Korean mission. *Mission and Theology*, 14, 109-142.]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16년 말 선교사 통계.”

http://kwma.withch.kr/bbs/board.php?bo_table=sub7_1&wr_id=1672&page=2. (검색
일 2017.1.23.)

[“Annual report of missionaries statistics in Korea in 2016”,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2017.01.10.). Retrieved from http://kwma.withch.kr/bbs/board.php?bo_table=sub7_1&wr_id=1672&page=2. (2017.01.23.)]

Bajkiewicz, C. (2009). Evaluating short-term missions: How can we improve? *Journal of Christian Nursing*, 26(2), 110-114.

Camp, C. A., Bustrum, J. M., Brokaw, D. W., Adams, C. J. (2014). Missionary perspectives on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member care practices.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42(4), 359-368.

Giorgi, A.(Ed.)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Trans, Shin, G .R. et al. PA: Duquensne University Press.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0.

Giorgi A. (2012).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43, 3-12.

Hiebert, P. G. (1985).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22th ed.) Trans, Kim, D. H. et al. MI: Baker Book House Company.

Keckler W. T., Moriarty, G., Blagen, M. A. (2008). Qualitative study on comprehensive missionary wellnes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7(3), 205-214.

Lincoln Y. S.,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Publications.

Schwandt J, Moriarty G. (2008). What have the past 25 years of member care

research taught us? an overview of missionary mental health and member care services. *Missiology*, 36(3), 317-326.

Tazelaar, G. (2011). Challenges and trends in global healthcare missions. *Journal of Christian Nursing*, 28(3), 152-157.

Tommy, A. M., Alligood, M. R. (2006). *Nursing Theorist and Their Work*. (6th ed.). Trans, Park, Y. S. et al. Amsterdam: Elsevier.

논문초록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미영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손수경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해외선교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한 지지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2년 이상 해외선교 경험이 있는 여성 간호선교사 9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3년 5월부터 시작하여 자료가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른 2014년 9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근거로 자료수집과 분석의 순환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낯선 땅에서 기독간호사로 살아가기’였으며, 도출된 6개의 구성요소는 ‘선교소명과 준비’, ‘낯선 세계와 맞닥뜨림’,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자신, 타인 및 선교에 대한 깨달음’, ‘선교지의 변화를 보는 기쁨과 보람’, ‘깊어지는 영성’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선교사들의 삶과 고충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실제적인 돌봄과 지지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선교사, 해외선교, 현상학